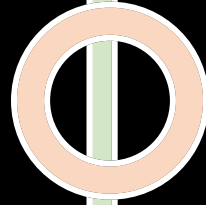


박훈정의  
<마녀>  
그리고  
<아기장수>



## 강사 소개

이름 : 전철희

2001년 게임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 수상(문화관광부상)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졸업. 같은 학교 석/박사 학위 받음.  
2010년 대산대학문학상 수상. 이후 문학/문화평론가로 활동.

강의 경력 : 2013~2016년 육군사관학교 강사/조교수.  
2020년 이후 3개의 수도권 학교에서 강의 중.

# 목차

박훈정 감독의 스타일

- 배우진에 내몰린 사람의 이야기.

<마녀> 핵심 요약(관찰은 영화인가?)

<마녀>와 아기장수

# 수업으로 배울 것

1. 배수진에 내몰린 인물의 행동을 그려낸 작품을 생각해봅시다.
2. <마녀>는 괜찮은 영화일까요?
3. <마녀>와 <아기장수> 설화는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 비교를 통해 할 수 있는 <마녀>의 주제는?

# 박훈정은?

- 1975년생, 각본가, 감독
- 각본 : 악마를 보았다,  
부당거래
- 연출, 각본 : 혈투, 신세계,  
대호,
- 제작+연출, 각본 :  
브이아이피, 마녀, 낙원의 밤.





본 영화 있으신가요?  
안 좋은 인간들(남자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야기들...





- 최민식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싸이코패스 연쇄살인마. 그는 임신한 여자를 죽인다.
- 이 여자의 약혼남은 국정원 경호팀장이병헌이었고, 그는 사적인 복수에 나서는데...

악마를보았다

이병헌 최민식

2010. 8. 11

**〈장화, 홍련〉〈달콤한 인생〉〈좋은 날〉〈눈을 뜨면〉 김지운 감독** [www.isawithdevil.co.kr](http://www.isawithdevil.co.kr) [cafe.naver.com/isawithdevil](http://cafe.naver.com/isawithdevil)  
 김지운 감독은 **〈장화, 홍련〉**을 통해 한국판 천하장사에게 최우성 감독이 감동 **〈달콤한 인생〉** 김지운 감독은 **〈장화, 홍련〉**을 통해 한국판 천하장사에게 최우성 감독이 감동

## <신세계>의 경우

- 경찰 최민식이 이정재를 범죄조직 '골드문'에 잠입시킨다.
- 이정재는 8년만에 골드문의 2인자가 된다.
- 골드문 후임회장을 뽑을 때가 되자 최민식은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정재를 '브라더'로 생각하는 황정민은 이정재를 믿고 의지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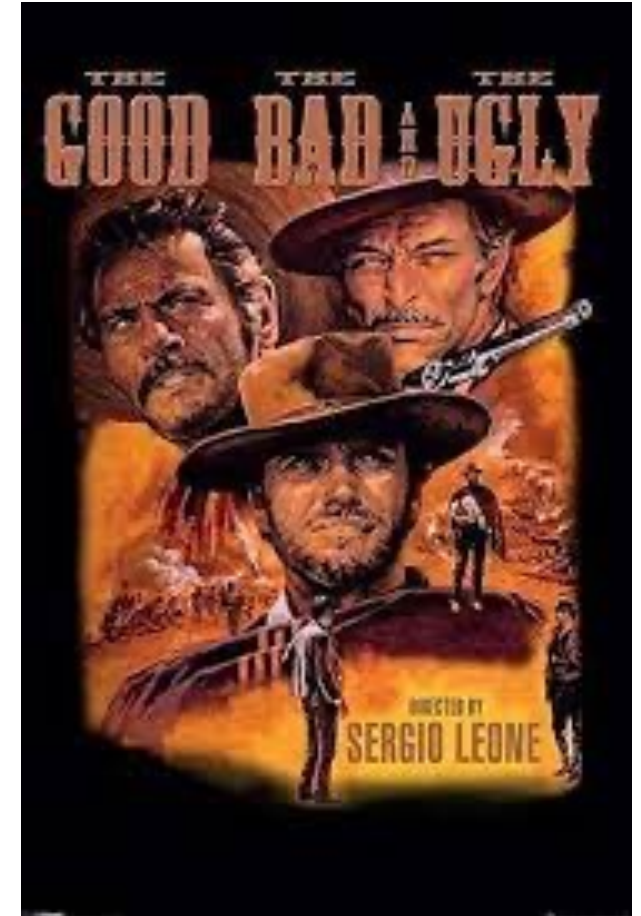


## 최근작(낙원의 밤)

- 박태구는 비정한 킬러로 거대폭력조직 북성파 보스를 작업했다. 제주도에 갔다가 시한부 전여빈을 만난다. 둘은 썸타는 듯, 가족인 듯 친해진다..
- 북성파의 2인자이다가 1인자가 된 차승원은 박태구를 쫓는다. 그러다가 전여빈을 인질로 잡는다.
- 박태구는 전여빈을 찾으러 가고, 박태구와 전여빈은 차승원 일행을 찾아가고...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신념을 걸고 or 배수진에 내몰려 싸움에 나서는 이야기.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

윤리적 문제가 있다.

- 나쁜 놈을 정당화하는 것인가?
-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인가?



# 생각해볼 문제들.

초록물고기 : <https://www.youtube.com/watch?v=-k0mKiH3CPw>

조커 계단신 : <https://www.youtube.com/watch?v=hpXD2hwHjC8>

조커 살인신 : <https://www.youtube.com/watch?v=twZlrTf4Gls>

- 작품을 보며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인물의 행동에 공감한 적 있나요?
- 가난하게 살아온 남자가 조폭이 되는 모습을 불쌍하게 그려낸 영화(초록 물고기) or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악당이 되어가는 모습을 매혹적으로 그려낸 영화(조커)는 윤리적으로 괜찮은 작품일까요?



<마녀>를 평가해보자.

# <마녀>의 줄거리는?

- ‘자윤’(김다미)은 10년 전 의문의 사고가 일어난 시설에서 탈출하고 기억을 잃었다.
- 착한 그녀는 어려운 집안사정을 돕기 위해 오디션 프로에 출연한다
- 주변에서 그녀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자윤을 괴롭힌다.
- 자윤은 그들에게 거의 끌려간다. 그런데 착하던 자윤을 갑자기 무서운 눈을 하고, “당신들이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찾은 것이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자윤은 초능력자라서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하는데, 그 약을 구하러 왔던 것. 자윤은 연구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처치하고 약을 구해서 나간다.
- 자윤은 마지막에 자신이 속한 연구소의 여자를 찾아가는데...(마지막 부분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애매하고 후속작을 위한 떡밥으로 보임.)

# <마녀> 몇 장면

- 각성
- <https://www.youtube.com/watch?v=51jBJe4cJq4>
- 마지막 장면
- <https://www.youtube.com/watch?v=bqmF5qrQVbc>

## 박훈정 감독의 영화로서의 <마녀>

- 자윤은 극한의 상황에 몰리고 나서 각성한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응징한다.
- 그래서 우선 관객들은 그녀를 연민하고 그녀의 액션에 통쾌함을 느끼게 된다.



# 박훈정 감독의 영화 중 <마녀>의 특이성

- 자윤은 여자 주인공이다.(다만 이 영화에서 그녀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
- 초현실적 히어로물이다.
- 자윤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는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들(조직)에 맞서 싸운다.
- 자윤은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살아온 여자였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녀에게 어느 정도 공감하고, 그녀가 각성할 때는 충격을 받게 된다.

## <마녀>를 이끌고 가는 힘은..

- 주인공이 진짜 초현실적 힘이 있는 사람인지, 만약 힘이 있다면 어떤 힘이 있는지를 관객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왜 갑자기 조직이 주인공을 쫓는지도 알 수 없다.
- 그래서 영화 초반부는 혼란스러운데, 후반부에서는 어느 정도 '떡밥'들이 해결된다.

# 애매한 떡밥들

- 자윤은 진짜 기억을 잃고 살다가 억압을 받고 각성한 것일까? 아니면 원래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닌데, 착한 척 연기를 하면서 살다가 결국 약을 구하려던 것일 뿐일까?
-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해설할 것인가?

# 영화를 평가하는 방법

- 인물에 공감이 되는가? -> 인물이 매력 있는가?
- 사건은 개연성이 있는가?
- 매력 있는 장면이 있는가?
- 보고 깨닫는 것이 있는가? ...



# 이 영화는 괜찮은 영화일까?

- ★★☆☆  
기묘(할 정도로 기묘하지 아니)한 이야기  
- 허남웅
- ★★★  
조금 더 불친절해도 좋았을 텐데  
- 장영업
- ★★★  
기시감의 연속. 김다미의 발굴에는 박수를  
- 임수연
- ★★★  
액션은 CG와 편집으로, 스토리는 입으로  
- 이용철
- ★★★  
차용에서 활용으로(박평식)
- ★★☆☆  
숨기기 급급해서 등장 타이밍을 놓친 마녀의 존재감  
- 김현수

- ★★★  
배경 설명에 그친 인상은 연작 기획의 한계일 것이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주인공을 좇는 인물들에게 할애된 장면들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점, 모든 의문을 인물의 대사로 설명하는 방식 등은 별개로 아쉽다. 다만 지나친 감정이나 여성성에 발목 잡히지 않는 초인적 캐릭터의 등장은 반갑다. 후반부 액션이 위력적인 이유는 캐릭터들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물의 발목을 구구절절하게 잡는 여타의 감정들이 제거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음 편을 궁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 - 이은선

저  
정  
말  
아  
니  
에  
요

마녀

2018 미스터리 액션

김다미 조민수 박희순 최우식 | 박훈정 감독

2018.06.27

# 구자윤(김다미), 공감할 만한 캐릭터인가?

- 현실적 설정 : 가난한 집에서 착하게 살던 아이.
- 비현실적인 설정 : 본래 초능력자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실험한 조직에게 원한이 있고, 자신을 건드리는 인간들을 싫어하고, 마침 악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소에 복수도 해야하는 입장...
-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요컨대 <마녀>의 평가는...

- 이야기를 사건보다는 대화로 설명할 때가 너무 많다. (제작비 문제라고...)
- 이야기가 좀 전후 맥락은 없고, 인조인간-유전자조작인간의 문제 같은 것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주인공(구자윤-김다미)은 매력적이다. 그런 캐릭터는 한국영화에서 거의 없었다.
- 액션은 멋지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느낌의 히어로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게 느껴진다. 그런데 액션 장면이 길지는 않고, 영화 중반 이후에 몰려서 잠깐 나오는 것은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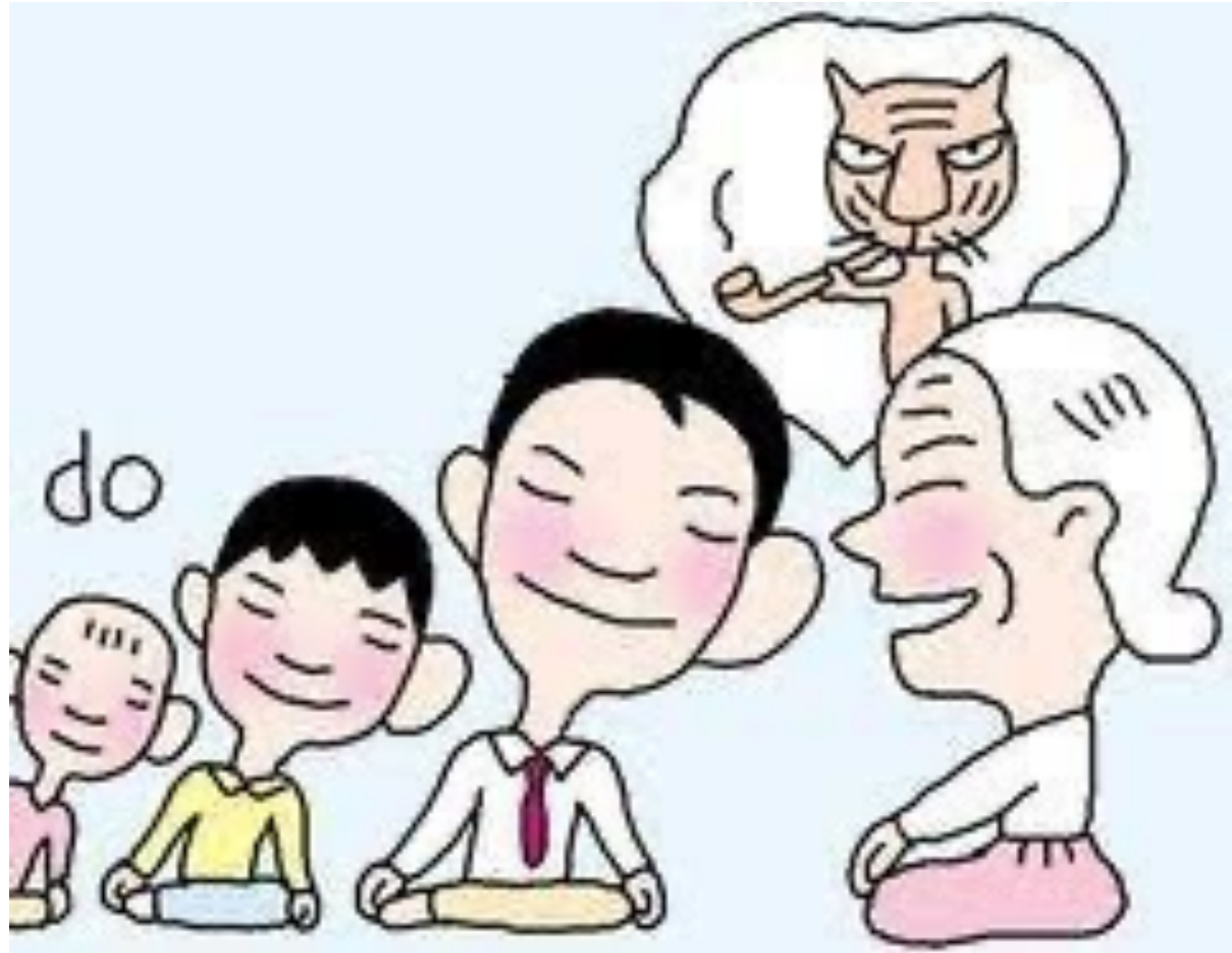
<마녀>,  
<아기 장수>와 비교해보자.



## 원형으로 보기

- 프랑켄슈타인, 마녀 이야기와 연결시켜 볼 소지가 있으나, 이 수업에서는 <아기장수 설화>와 연결시켜보겠습니다.
- 그리고 두 작품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마녀>의 특징을 더욱 정밀하게 알아봅시다.

## 구비문학의 특징



# 아기장수(기본형)



- 1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 2 아이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 3 이 일을 계기로 아이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한다.
- 4 부모는 화가 미칠까 두려워 아이를 죽이려 한다.
- 5 아이를 어렵게 죽인다(아이가 스스로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 6 아이가 죽자 용마가 울다가 사라진다.

# 아기장수(확장형)

- 1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 2 아이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 3 아이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한다.
- 4 아이가 위태로움을 알고(혹은 죽음을 맞아) 어머니에게 곡물을 청한다.
- 5 아이가 특별한 곳으로 떠난다(묻힌다).
- 6 관군이 와서 아이를 찾는다.
- 7 어머니가 발설하여 관군이 아이를 찾아낸다.
- 8 아이가 장수가 되고 곡물이 군사가 되어 막 일어서려는 것을 죽인다.

## 민중영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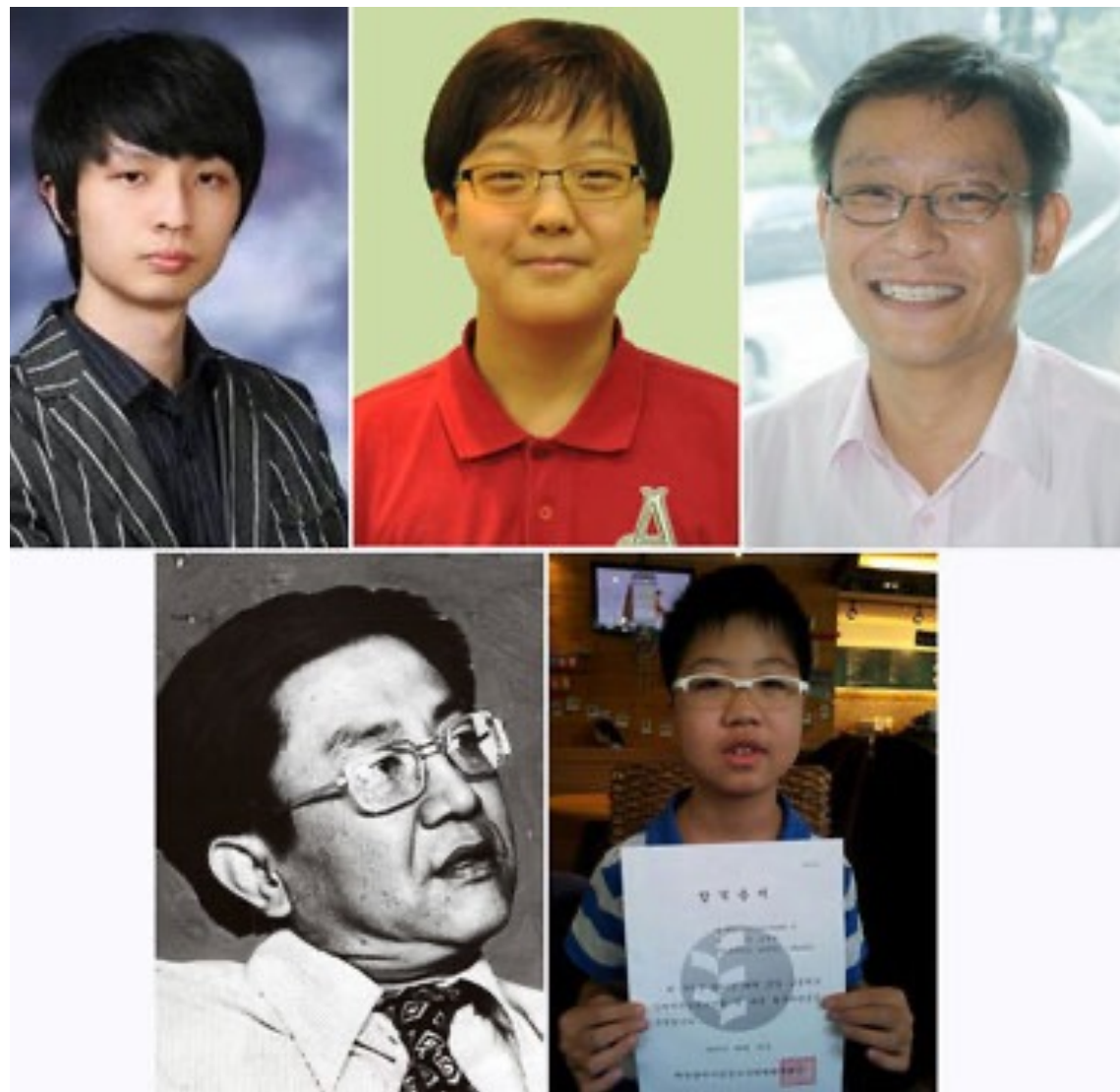
- 억압과 탄압을 받으며 살던 사람들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나서는 이야기들..
- 그런데 왜 <아기장수>는 허망하게 죽나?





# 한국의 천재들.

- 이한경 : IQ177(세계7등) 주의력 산만한 학생 취급받고 연대공대->반수 후 의대 진학.
- 김웅용 : IQ210. 5세에 한양대, 8세에 콜로라도 주립대 대학원 가서 박사수료. NASA에서 일하다가 단순업무해서 한국 오고 지금은 직장인
- 지금도 탁월한 능력 발휘하기 힘든 사회. 과거에는?







한국에서 영재의 활약을  
막는 요인들은?



## 아기장수에 대한 해석

---

- 민중 영웅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 +
- 탁월성에 대한 두려움
- +
- 세대갈등?

# <마녀>의 구조

1. 특수 시설에서 닥터 백과 미스터 최는 아이들을 죽인다.
2. 도망친 구자윤은 목장의 양녀가 되고, TV에 나온다.
3. 닥터백 일행이 자윤의 양어머니와 친구를 괴롭히자 자윤은 폭주.
4. 자윤은 자신이 다 계획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5. 자윤은 복수한다.
6. 자윤은 양어머니를 구원한다.
7. 자윤은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다.

# 구조적 유사성

	<아기장수>	영화 <마녀>
장수(능력자)	아기장수	구자윤
두려움의 주체	어머니	닥터 백
권력자	관군(나라)	상부(본사)

# 주요 플롯

<아기장수>	영화 <마녀>
1 평범한 가정	1 특수 시설
2 아이 출생	2 유전자 조작에 의한 출생
3 뛰어난 능력	3 살인자로서의 뛰어난 능력 확인
4 살해(죽음)	4 두려움과 살해의 시도
5 이주	5 탈출과 이주
6 <u>추적자의 도래(수동적 노출)</u>	6 <u>TV 노출 (주체적 노출)</u>
7 탄로	7 귀공자 등의 접근
8 살해(죽음)	8 죽음의 위험에서 생존

# 무엇이 같나?

- 민중 영웅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 <마녀>도 억압받는 사람이 초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관객을 대리 만족시킴.



# 왜 달라졌을까?

- 탁월성에 대한 두려움 : “이 세상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탄압하지 않나?”  
-> 튀는 것을 억누르는 한국사회에 대한 알레고리.
- 세대갈등 : 특출한 젊은 세대가 자신들을 억누르는 '꼰대'들에게 복수하는 서사로 변모.

1. 배수진에 내몰린 인물의 행동을 그려낸 작품을 생각해봅시다.
2. <마녀>는 괜찮은 영화일까요?
3. <마녀>와 <아기장수> 설화는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 비교를 통해 할 수 있는 <마녀>의 주제는?

# 다음 수업에서는...

- 12주차 : <허삼관>으로 보는, 한국 영화의 신파(가부장적 부성애, 가족애, 힘든 아버지의 이야기...)  
- Feat. <7번방의 선물>, <국제시장>
- 13주차 : <헝거게임>과 '데스게임'의 서사들  
Feat. <배틀로얄>, <오징어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전지적 독자 시점>



# 참조문헌

- 심우장, 영화 <마녀>를 통해 본 <아기장수> 전설의 현재적 의의, 2021.
-